

# 외부인이 본 대종회



송하임 과장이 지난 6월 14일자로 2년 3개월의 대종회 근무를 마치고 퇴직하였다. 송하임 과장은 대종회의 직원으로서는 내부인이었지만 타 성씨로서는 외부인이었다. 그동안 정들었던 대종회를 떠나면서 축진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려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해 몹시 송구스럽다며 인터뷰를 통해 인사를 드렸다. 또 외부인이 안동권씨 대종회에 깊숙이 관여해서 업무를 보았던 터라 앞으로 이런 경우도 흔하지 않을 것 같아 외부인이 바라본 대종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궁금해서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다. 인터뷰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대종회에서 권행만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송과장** :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이런 경우가 없는데... 나이 드신 축진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간혹 접하다보니 인생의 허무함 같은 것을 많이 느꼈다. 인생이 뭐지 또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전화를 하다보면 산골지역 등 조금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가끔 전화라도 드리면 너무 고마워 하셨다. 대종회에서 전화까지 해 주신다고 정말 고마워 하셨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축진회 차원에서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대종회가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데 이런 분들에게 같은 축진으로서 전화도 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편집국장** : 송과장은 안동권씨가 아니고 송씨인데 타 성씨로서 안동권씨 대종회에서 느낀 점은 뭐가 있나

**송과장** :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무하다보니 이제는 웬만한 안동권씨보다 안동권씨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족보 성화보를 안동권씨에서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또 어느 성씨도 발행하지 않고 있는 종보를 45년 동안이나 만들어 왔다는데 또 놀랐다. 안동권씨는 양반이라는 소리가 허튼 소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임원들 중에 재력가도 많고 정치가도 많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이 많아 짝짝 놀랐다. 안동권씨는 안동권씨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가끔 축진끼리 싸우는 걸 보면 안타까웠다. 잘 모르겠지만 억측 같은 것으로 안 싸웠으면 좋겠다. 나쁜 점만 보지 말고 잘한 점도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다.

**편집국장** : 안동권씨만의 응집력이나 단결력 위 이런 것은 볼 수 없었나

**송과장** : 권율장군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문제를 가지고 안동권씨라면 누구든지 내 일처릴 여기고 애쓰며 100만 축진들이 토폭 물쳐서명을 받고 청와대와 국회의장실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동권씨만의 응집력을 볼 수 있었다. 대단한 것 같다. 사실 권율장군 행주대첩제는 마땅히 국가행사로 격상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조금 빨리 했더라면...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때가 제일 빠르다고 하지 않나

**편집국장** : 종보를 수작업으로 발송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송과장** : 종보를 발송할 때 사전에 우편번호대로 분류해서 봉투를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체국에서 감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액되는 금액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종회 입장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여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지만 봉사의 성격도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부족한 인력으로 전국을 상대하다보니 솔직히 힘들었다. 지역종친회가 활성화되어 분담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왔다. 축진들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7월부터는 우편물이 우편번호제

에서 집배원들의 집배코드체제로 변경된다고 한다. 우체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집배코드로 변경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는 작업이다. 걱정이 많이 된다.

**편집국장** : 그래도 예전에 비해 정보 업무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송과장** : 정보 업무뿐만 아니라 대종회 업무가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 과거에는 왜 이것을 안 해왔지 하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데 회장님 바뀌면서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재정이나 행정이나 인력 등에서 개선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정보는 예전에 비해 정보의 질이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 이제야 신문답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뿐만 아니라 정보운영체제를 개선하여 직접 운영하는 측면도 큰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정보대금 납부액이 대종회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전국의 여러 축진들이 도와준 덕분이다.

이전에 비해 재정도 늘어났다. 2년 동안 8천만원을 적립했으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또 또한 근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은행에서 빌린 돈이 원금만 2억이다. 매월 60만원씩 이자를 갚고 있기는 하나 원금은 하나도 안 갚고 생돈이 나가고 있다. 이것 볼 때마다 짜증도 났다.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하니 회비 납부하라고 공문 보내고 정보대금 납부하라고 지로용지 와도 노여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기사 보시고 앞으로 돈이 평평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회장님이 매일 출근하면서 임원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행정을 속속들이 행처서 명기적 거릴 틈이 없었다. 바야 바로 처리해야 한다. 처리안하면 불호령이 떨어진다. (웃음)

**편집국장** : 송과장이 대종회에 대해 이런 저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니 안동권씨가 다 된 것 같다. 그렇게 걱정해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 대종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

**송과장** : 2년여 남게 있다 보니 안동권씨가 다 되었다. (웃음) 타성인 저처럼 축진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종친회는 강제성이 없다.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기왕이면 비방이나 음해 등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송이 일어날 때마다 그 비용은 정보대금이고 회비이다.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다.

**편집국장** : 마지막으로 축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과장** : 그동안 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축진들님께서 아껴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안동권씨 100만 축진들이 늘 건강하시고 대종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번 인연을 맺었으니 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국장** : 그동안 대종회를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송과장의 바람대로 대종회가 서로 화합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편집국장 권행만

## 낭중공 단소 묘역에 3세에서 9세 선조 설단 건립 추진계획



지난 5월 24일 11시 자유총연맹 2층에서 개최된 제45차 안동권씨 대종회 정기총회에서 안동권문의 최대 현안인 3세부터 9세까지의 설단 건립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와 지지를 확인한 바 있다.

권해욱 회장은 축진들의 만장일치의 찬성을 확인하고 어느 장소에 설단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 추진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회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2019년 6월 1일 제528호 참고)

이처럼 태사공 이후 3세에서 9세의 설단 건립은 100만 축진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제 대종회는 축진들의 만장일치된 결의를 추진동력으로 삼아 3세에서 9세 선조들의 설단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상황에 처해 있다.

낭중공 아시조는 청도에서 대종(大塚) 권릉설(權陵說)에 의해 100만 축진의 뜻을 모아 당초 청도에 단소를 마련했으나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아시조의 단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제향 등에 문제가 있어 시조 태사공의 묘소 가까이 모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시조 태사공 묘소 가까이 낭중공 단소를 마련하다 보니 여러 축진들이 찾게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각종 모임 등에서도 3세에서 9세 선조에 대한 설단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에 어느 축진께서 낭중공 단소의 둘레석과 둘레석 사이에 틈이 많이 벌어져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만약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둘레석과 둘레석 간의 틈은 점점 더 벌어질 것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보수공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다는 제보와 함께 대종회에서는 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다.

이에 대종회에서는 이러한 축진들의 제보와 또 지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3세에서 9세까지 선조의 설단 문제를 포함하여 대안마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시급한 현안에 직면하여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100만 축진의 중지와 지해를 모아 춘추향제 등의 제향까지 고려하여 낭중공 단소 묘역에 3세에서부터 9세까지 선조들의 단소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해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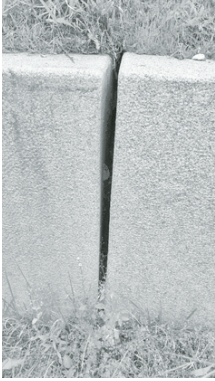
낭중공 단소를 보수해야 한다는 제보와 지난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된 결의 그리고 100만 축진의 여론을 바탕으로 낭중공 단소를 다시 중수(重修)하고 3세에서부터 9세까지 7대에 이르는 선조들의 단소도 대대적으로 마련하여 춘추향제 때 시조 태사공 향사와 더불어 아시조 낭중공은 물론 3세에서부터 9세까지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향을 드리면 100만 축진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것은 후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사료된다. 안동권문의 최고 최대의 현안문제인 3세에서 9세 선조의 설단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 낭중이라는 관직명은 어느 부서 소속인가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서도 호족세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중앙집권적인 왕권을 구축할 수 없었다. 태조 정치권력의 한계였다. 이런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 호족들을 회유하고 포섭하는 전략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귀부자(歸附者)는 왕에 충성을 바치고 귀부대상은 귀부자에 대한 군사적 보호와 지방의 독자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 지방세력들에게 본관과 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강구한다. 대표적으로 안동권씨 시조 김행에게 본관과 권씨 성을 내려준 사건이다. 왕건은 병산전투(弓昌 전투) 시 안동의 지방세력인 김행이 병기달관(柄機達觀)의 권도(權道)를 발휘하여 대승리를 거두게 되자 권(權)이라는 성과 함께 안동을 본관으로 삼도록 했다.(목은문고 권16, 重大臣玄福君 權公嘉謨銘) 또한 이전 서씨의 서목에게 이천을 본관으로 부여한다. 서목은 왕건이 경기도 이천 근처 남한강에 이르렀을 때 강을 건너는 데 도움을 주었다(利涉大川)하여 이천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본관으로 삼도록 했다.(고려사 권56, 지리) 광주목\_이천군조) 유력한 지방세력들에게 본관을 부여하여 그들이 향촌사회에서 누리는 지위와 권위를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고려는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지방세력들의 자율적 집사를 해체하기 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분권적인 지방세력들에게 그들의 자율적 지배를 인정한 셈이다. 왕은 장기적으로 중앙집권을 기도하고 지방 호족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분산을 지향하는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중앙권력은 지



배를 통해 집권화를 추구하고 지방세력은 자율의 영역을 지키려 분권화를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고려는 지역 분립적인

호족들의 자율적인 통치기반을 활용하였다. 고려 초기 최승로는 상소문에서 “태조께서 후삼국을 통합한 뒤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조(왕조) 초창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겨를이 없었습니다.”(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라고 말한다. 김운태 교수는 이 시기에 지방의 호족세력은 강대하였던 반면, 중앙 행정력은 미약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김운태, ‘고려정치제도과 관료제’, 박영사)고 말한다. 이 때문에 왕권은 약하고 그 미치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지방은 거의 향호(鄉豪)들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김운태)

안동권씨 2세 선조는 낭중공(郎中公)이다. 낭중이라는 관직명은 지방호족의 통치조직에 나타난다. 최승로는 성종 원년(982)에 지방제도 등에 관한 시무책을 건의한다. 최승로는 중앙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아 통제받지 않는 향호들의 부패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호들의 자율성만을 믿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일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든다. 지방에 대한 향호들의 자율적 지배의 철회를 요청한 것이다. 성종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12목(설치지역은 楊州, 廣州, 忠州, 淸州, 公州, 晉州, 尙州, 全州, 羅州, 昇州, 海州, 黃州이다.)을 설치한다.

이때 지방호족들의 통치조직에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난다. 이때 표는 <지방 호족들의 통치조직>이라 할 수 있다. 괄호 안은 성종2년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면서 신라의 당대 등(堂大等)을 호장이라 하고 대등(大等)을 부호장이라 명칭을 변경했다. 국초에 호족세력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당대 등(堂大等)을 수반으로 하여 대등(大等) 아래에 병부(兵部)와 참부(倉部) 등을 두는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갖추고 여러 지역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高麗史』 권75, 選舉志 銓注鄉職 咸宗2年) 지방세력이 자율적인 지배기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듯하다.

|       |       |       |       |       |      |
|-------|-------|-------|-------|-------|------|
|       |       | 戶部... | 郎中    | 員郎外   | 執事   |
|       |       | (司戶)  | (戶正)  | (副戶正) | (史)  |
| 堂大等 - | 大等 -  | 兵部... | 兵副卿   | 筵上    | 維乃   |
| (戶長)  | (副戶長) | (司兵)  | (兵正)  | (副兵正) | (兵史) |
|       |       | 倉部... | 司倉    |       |      |
|       |       | (司倉)  | 卿(倉正) |       |      |

뿐만 아니라 공예가 처음 설치하여 국정을 총괄했던 광평성(廣評省)에도 낭중이라는 관직명이 보인다. 다시 왕건은 이 광평성을 호족세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용한다. 이때도 관직명으로서의 낭중은 설치되어 있다. 왕건이 왕권강화의 목적으로 개척했던 서경의 최고행정기관에도 낭중이라는 관직명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안동권씨의 2세 낭중공의 관직은 중앙의 어느 부서에 속했었는지 아니면 지방호족의 통치조직 중의 하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편집국장 권행만



고려시대 정묘문화 풍습에 따른 청도 낭중공 아시조 단소(옛 모습)